

광주일보 '中國 인물이야기' 50회 연재... 박종구 초대대 총장

“제갈량·조조 등 영웅들 삶과 지혜 2천년 지난 요즘 사회에도 큰 울림”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제를 시작으로 청나라 말기까지 황제, 재상, 장수, 책사 등 중국의 주요 인물을 추려 연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주요 인물의 삶과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 현실과 비슷하거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독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인물이야기”에는 그만의 인물 해석이 담겨 있다. 주인공을 선정하면 관련된 여러 책·자료들을 살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지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라고 했다. 15권이 넘는 책을 살펴본 뒤에야 주인공을 선택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도 독자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했다.

그는 또 “많이 알려진 내용, 인물과 관련된

지난 4일 무안 초당대 총장실에서 만난 박종구(58) 총장의 책상에는 책·자료·메모들이 펼쳐져 있었다. 오는 11일 광주일보에 게재할 자신의 칼럼 주인공으로 내세울 중국 인물과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그가 지난해 10월 6일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라는 제목으로 ‘박종구의 중국인물이야기’를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다. 그는 ‘조조의 중순 사위 혜강’이라는 제목으로 50회를 게재한 신문이 나온 이날도 51회 주인공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칼럼이 게재되면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요즘 삶이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는 평이 잇따랐다. 일부 독자들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는 말로 박 총장 칼럼에 대한 기대감을 표실했다.

어떻게 인물을 채택하는걸까. 그는 “중국

고사성어 등을 다루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을 균형있게 소개하려고 했다”고 했다.

지금껏 게재된 인물들 중 ‘진시황’(2015년 10월 6일), ‘사마천’(2015년 12월 22일), ‘황제 무제’(2015년 12월 29일) 등과 제갈량, 조조 등의 삶과 인제 중용의 지혜, 정치적 능력 등은 요즘 사회에서도 되새겨볼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게 박 총장 설명이다.

그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건 역사 속 인물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아주대 교수와 기획예산처 단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초당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충곤 화순군수, 세계유산도시협회장 선출

구충곤 화순군수가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 세계유산협의회)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소재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회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기회의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구충곤은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세계유산을 보유한 화순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훈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가 있다.

세계유산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특별법인 추진과 도시협의회 CI 제작 확정, 차기 임원도시를 선출하는 등 세계유산 도시 회원 간의 정보교환과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주시를 비롯한 수원시, 안동시, 합천군, 공주시, 부여군, 서울 종로구·성북구, 고창군, 강화군, 익산시, 경기도 광주시, 화순군 등 13개 회원도시 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13개 지자체가 세계유산의 공통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창립했다. /화순=배영재기자 byj@



소설가 한강 ‘연문인상’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는 제16회 연문인상 수상자로 문화예술 부문에 소설가 한강(서울예술대 교수), 학술 부문에 전인초 연세대 명예교수, 사회봉사 부문에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교수는 맨부커상을 수상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 교수는 연세대 문과대학장과 국학연구원장을 지내면서 한국 국학 연구에 기여했고, 백상임이사는 한국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 사회봉사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 ‘천사데이’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김형준) 간호부(부장 박은순)는 최근 병원 현관 일대에서 ‘천사(1004)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건강한 경주를 위한 운동요법



순천교도소 ‘부정청탁 금지법’ 준수 서약

순천교도소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서약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중국주광주총영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7주년 리셉션’

중국주광주총영사관(총영사 쑤시엔위)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7주년 경축 리셉션’을 개최했다.

쑤시엔위 중국주광주총영사는 경축사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은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항구적인 공동의 이익”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설가 최인훈 60년만에 서울대 명예졸업장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작가 최인훈(80)씨가 서울대 법대에서 제정된 지 6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최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월남했고,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입학해 6학기를 마쳤지만 1956년 등록을 포기해 제적됐다.

본단 현실에서 대학 공부에 전념하는데 갈등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나이가 되도록 충고를 갖지 못했다거나 거창한 세계관을 성립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보다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크다”며 회한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6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오방 최흥종 목사의 서거 50주년 기념예배 및 특별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오방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센인의 아버지” 오방 선생의 삶 혁명적

광주 YMCA 50주기 특별세미나... 최진석 교수 기조발제

“오방 선생은 완벽한 인격자,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던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6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오방 최흥종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예배 및 특별세미나 기조발제(오방 최흥종 선생의 생애와 사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에서 태어난 오방은 독립 운동과 한센인 치료에 일생을 바친 광주를 대표하는 큰 어른이다. ‘결인과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국 최초의 한센인 치료시설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1911)했고, 광주YMCA를 창설(1920)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시위사건으로 3년의 옥고를 치른 후 광주 북문 밖 교회의 목사로 활동했다.

최 교수는 이처럼 다채로운 오방의 삶에 대해 “기존의 자기와 결별하는 혁명적 삶이었다”

며 “자기와 결별”은 기존 제도와 조직을 지키는 종교인이 되려는 자신을 경계한 것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살았던 선생의 이타적인 삶도 포함된다. 그는 또 “오방을 종교인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 기독교 인이라는 범위에 가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로·집사·목사 모든 이름에서부터 이탈했음에도 가장 완벽한 종교인이 되려 했다”고 설명했다.

사)오방기념사업회와 광주YMCA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차준순 호남신학대 명예총장이 ‘광주 기독교 교회사에서 바라본 오방 최흥종 선생’을, 임락경 화천시교교회 목사가 ‘오방 선생 말년의 사회적 삶에 대한 성찰’을,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가 ‘오방과 생명존중’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축**
- ▲김춘호·신옥자씨 장남 현진근 안숙·정진아씨 차녀 형원양=8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중앙교회.
 - ▲김월출(전 광주시의회 의원)·양애련씨 아들 동산근 김승영·박경숙씨 차녀 건희양=8일(토)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 드 보네르 웨딩컨벤션.
 - ▲최복식·박은란씨 장남 용호근 강문기(서광경영연구소장)·오하숙씨 장녀 민정양=9일(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라뷰웨딩컨벤션 2층 모던홀.
 - ▲박중호·강희자씨 아들 현진근 광영근(전 광주일보 월간 예향)·김숙희씨 딸 율란양=11월 5일(토) 낮 12시 부산 제니스마린컨벤션 두산제니스스퀘어 2층, 광주피로연=15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컨벤션 1층 소피아홀.
- 동창회**
-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진갑) 한마음대축제=16일(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 남구 송원대학교 운동장, 문의 062-384-7447.
- 중친회**
- ▲진주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 회의=8일(토) 오전 11시 진주강씨회관 4층 대회의실 062-228-3368.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회 월례회=11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 보호. 062-959-2340.
-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인터넷·도박·니코틴·약물 등 무료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운영 생애주기별 예방교육, 지역주민 및 직장인 예방교육 실시 062-654-3802.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모집**
-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양성 교육생 모집=12월(수)까지 주 1~2회 봉사활동 가능한 남·녀 시민 모집, 동화구연·풍선아트·네일아트 등 10월 중순 이후 교육시작, 문의 062-228-1365.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회원=담양 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거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 부음**
- ▲장덕례씨 별세 황영성(조선대 디자인공학과 교수)·경희·연희·연임·정희·성

- 희·란희씨 모친상 최찬희·권영선씨 시모상 노성기·양근욱·박재훈·문두석씨 빙모상=발인 7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강봉덕씨 별세 임영균(전 우체국장)·영철(세무사)·영섭(전남일보 전무)·영기(공인중개사)·귀숙(삼성화재)·송순(전 임곡동장)씨 모친상=발인 7일(금)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2호 062-527-1000.
- ▲신연범씨 별세 김진수·성수·선희·도경·진미·채운씨 모친상 문귀영·이경미씨 시모상 김동욱씨 빙모상=발인 8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박주봉씨 별세 종철·종식·종연·종호씨 부친상 나양숙·윤미화·임순임씨 시부상=발인 8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삼가 故의 冥福을 밧니다

301호 故조유순 남(여/78세) 子/子婦 : 최병두/허애자, 최병철, 최병주 女/婿 : 최경자/정찬윤, 최경숙 夫君 : 최홍만 • 발 인 : 10월 7일 • 장 지 : 화순 훈양 선영	402호 故김재영 남(남/60세) 子 : 김대훈 女 : 김미선 未亡人 : 고송자 • 발 인 : 10월 7일 • 장 지 : 영락공원
102호 故차경숙 남(여/57세) 子/子婦 : 서지훈/김현지, 지익 女 : 서혜리 • 발 인 : 10월 8일 • 장 지 : 영락공원	夫君 : 서준순 • 연락처 : 227-4382 • 연락처 : 227-4383

마음까지 편안한 **孝 金호 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제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